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홍예지¹⁾ 이강이²⁾

요약

이 연구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변화의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변화 유형화에 따른 결과요인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8, 9, 10차 데이터에서 취업중임을 보고한 459명의 어머니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는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급감소집단’, ‘하위유지집단’ 및 ‘완만한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이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잠재집단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잠재집단 중 하위유지집단과 완만한 증가집단 간에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세 개의 양육행동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의 개인차를 확인한 결과이며,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취업모, 일-가정 갈등, 성장혼합모형, 종단연구

I. 서론

2019년 상반기 전국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통계청, 2019). 이에 더해 2019년 8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라고 보고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노동 시장의 생산성 및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 이 논문은 제 10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19.11.01.)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목소리가 높으며, 이에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여성의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Hong & Lee, 2019),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함을 의미하는 일-가정 양립(work-family balance)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일-가정 갈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일-가정 갈등은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 간 책임으로 발생하는 긴장을 말한다(Frone, Rusell, & Cooper, 1992). 이는 두 영역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서로 양립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역할 갈등(inter-role conflict)의 한 형태로(Greenhaus & Beutell, 1985), 개인이 가진 가용 자원의 한계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과부하와 긴장을 유발한다는 희소 가설(scarcity hypothesis)(Goode, 1960)에 근거하며, 이에 일-가정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Frone, Rusell, & Cooper, 1992).

구체적으로 일-가정 갈등은 크게 시간, 긴장 및 행동의 세 가지 갈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간 기반 갈등(time-based conflict)은 일과 가정 내 투자되는 업무 시간과 가정에서의 시간 활용의 부족에 기인한 역할 부담에 따른 갈등을 의미하며, 긴장 기반 갈등(strain-based conflict)은 한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피로와 긴장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근거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은 한 영역에서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 이와 반대로 인식될 때 지각하는 어려움을 말한다(연은모·최효식, 2018a; Greenhaus & Beutell, 1985). 이처럼 일과 가정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며, 관련하여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은 개인 및 소속 조직에 일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Grzywacz & Marks, 2000).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부모의 역할은 교육봉사 및 학부모 모임과 같은 행사 참여 및 교육 기여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자녀를 위한 교육 정보의 수집과 참여 기대 수준이 높아진다. 이에 이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최정숙(2011)은 학령기 자녀를 둔 전문직 여성에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 필요의 증가와 학령기 진입으로 인한 밀도 있는 지원의 필요 등 다중 역할의 요구가 취업모에게 '과부담 긴장과 혼돈'을 느끼게 하고, 이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실제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 취업모에게 부가된 주 양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은 일-가정 갈등을 높일 것이라 예상한다. 나아가 일-가정 갈등의 장기적 경향성을 파악한 소효종(2019)은 미취학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매우 어린 시기보다 초등학교에 이르러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수입, 직무 경험 등과 같은 자원의 상승한다는 연구(Waismel-Manor, Moen, & Sweet, 2003)를 통해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정 갈등을 확인한 연구는 대부분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거나 횡단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여성경력 단절과 출산의 기피현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장영은 외, 2011),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 즉, 심리적 특성 및 충분한 사회·정서적지지 및 양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적절한 자원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일-가정 갈등과 가정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다양한 요인과의 관련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개인이 다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장윤옥·정서린, 2014). 이에 브론펜브레너의 생물생태학적 체계 이론(bioecological systems theory) (Bronfenbrenner & Morris, 2006)을 근거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 요인은 심리·정서적 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이 지각하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이 일-가정 갈등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불안, 죄책감, 스트레스 등의 낮은 심리적 안녕은 일-가정 갈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낮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Lee & Lee, 2010) 및 양육의 질과 양육효능감(Cooklin et al., 2016)이 일-가정 갈등과 관련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 중 양육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에 따라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역할 수행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 및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ong & Lee, 2019). 관련하여 양육 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이 관련이 있음(박주희, 2015; Goodman et al., 2011)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우울과 일-가정 갈등의 관련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Rijswijk et al., 2004; Rodriguez, 2009)는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정서적 위험요소인 우울이 삶에 부여하는 긍정적 의미를 저해할 수 있으며(Abela & Sarin,

2002),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변인 간 영향력이 반대가 될 수도 있음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조규영·김신경·전효정, 2018)는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우울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지각하는 역할 갈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으나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심리·정서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가능하며, 스스로 가치 있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특히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개인에 요구되는 다중 역할의 어려움과 갈등과 관련이 있음(연은모·최효식, 2018b)에 근거하여 자아존중감이 일-가정 갈등에 보호요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가족 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는 가족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부 간의 긍정적 관계는 가족의 정서적 환경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Ponnet et al.,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일-가정 갈등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일-가정 갈등에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Mauno & Kinnunen, 1999), 남편의 만족스러운 가사 도움이 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을 낮춘다는 연구(장영은 외, 2011), 일-가정 갈등이 맞벌이 가정의 부부가 상호 간 느끼는 갈등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정선이 외, 2019)가 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가정 내에서 지각하는 부부 갈등이 일-가정 갈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과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소영, 2017). 선행 연구(김소영, 2017; 소효중, 2019)는 직장내와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적 환경 제공, 교육서비스 등과 제도적 지원이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을 낮춘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직장내와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적 환경 제공,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취학 자녀가 아닌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내 자녀의 연령과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는 척도의 범위에 따라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Hong & Lee, 2019). 구체적으로 Hong과 Lee(2019)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거시적 관점의 지역 사회 내 지지 즉, 지역사회 내 적절한 시설 제공 및 양육환경 적합성은 취업모의 긍정적 가족 기능

과 유의한 관련이 없지만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미시적 관점으로 한정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취업 여성이 취학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주변으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도움 즉,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를 중심으로 일-가정 갈등과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가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역할 갈등에서 오는 심리적 역기능을 보호하는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종단적 변화를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별 잠재집단에 속한 취업모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나아가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이 이들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일과 가정환경의 접점에서 양 영역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이 갖는 의미를 가정 내 실질적인 양육행동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취업모의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가 올바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세 개의 유형(권위있는, 권위주의적, 허용적)(Baumrind, 1966) 혹은 네 개의 유형(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너그러운, 무관심한)(Maccoby & Martin, 1983)으로 구분된다.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질을 반영하는 것으로(Russell, Pettit, & Mize, 1998), 수직적 혹은 수평적 부모-자녀 관계로 나타난다. 부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면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온화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장 이상적이라 일컫는 권위있는 양육행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양육행동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다(이운경·김민주·윤기봉, 2018).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특히 개인, 가족 및 직장 영역에서 역할에 따른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하고자 하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가지며, 이렇게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자각함에서 오는 일-가정 갈등은 삶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한다(Cooklin et al., 2016). 이는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끌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국내외 연구(이운경·김민주·윤기봉, 2018; Buehler et al., 2014; Cooklin et al., 2016)는 일-가정 갈등이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Cooklin과 동료들(2016)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낮고, 처벌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이운경, 김민주와 윤기봉(2018)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높은 일-가정 갈등이 심리

적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작용하여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가정 갈등의 위험과 어려움이 미칠 수 있는 취업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종단적 변화를 유형화하고, 변화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과 변화 유형화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의 변화 형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개인, 부모 및 사회적 요인 중 일-가정 갈등의 잠재집단의 영향요인으로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잠재집단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8차년도(2015년), 9차년도(2016년) 및 10차년도(2017년) 자료의 일-가정 갈등에 해당하는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 중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어머니를 제외하고, 3차 년도 데이터 모두에서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어머니 459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85-92개월에 해당하는 학령기 자녀의 평균 월령은 만 87.93($SD = 1.53$)개월이었으며, 출생 순위는 둘째가 4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8.18($SD = 3.54$)세이었으며,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초혼 및 재혼이 97.4%에 해당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459)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아동성별	남아	228(49.7%)
	여아	231(50.3%)
아동의 출생 순위	첫째	193(42.0%)
	둘째	206(44.9%)
	셋째 이후	60(13.1%)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3(0.7%)
	31~35세	94(20.4%)
	36~40세	256(56.0%)
	41~45세	93(20.1%)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21.8%)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119(25.9%)
	4년제 대학교 졸업	195(42.5%)
	대학원 졸업	45(9.8%)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5(9.8%)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24(48.9%)
	50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132(28.9%)
	7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51(11.1%)
	1000만원 초과	6(1.3%)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8차(초1)에서 10차(초3)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의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가정요인(부부갈등), 사회요인(사회적 지원)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의 변화 유형화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예측변인은 모두 8차 년도, 결과변인은 10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도구 변인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변인	측정 및 조작화	Cronbach's α	
일-가정갈등	8차	Marshall과 Barnett(1993)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가족 갈등(9문항)과 일-양육 갈등(6문항)에서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가정생활 및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느끼는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9차		
	10차		
양육스트레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에서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90	
우울	간편형으로 제작된 K6(Kessler et al., 2002)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에서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91	
예측요인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에서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89
	부부갈등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에서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93
	사회적 지원	이재림(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사교적지지 및 정보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3문항에서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94
결과요인	권위있는 양육행동	Robinson 외(1995)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애정 및 관여 11문항, 이성/유도 7문항, 민주적 관계 5문항 및 친절/편안함 4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90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화내기 4문항, 처벌 6문항,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 6문항 및 지시 4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88
	허용적 양육행동	허용적 양육행동은 일관성의 부족 6문항, 방관 4문항 및 확신 부족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3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허용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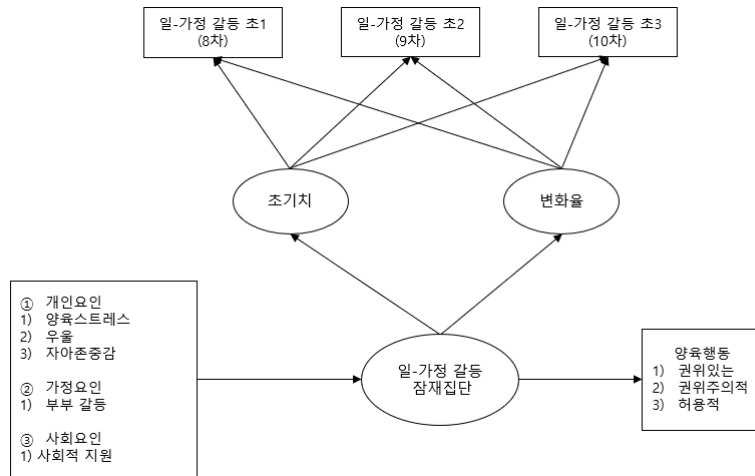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 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을 단일 집단이 아닌 다수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 결합된 모형으로 동일 집단 내에서 이질적 성장 특성을 보이는 하위 집단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Jackson, Sher, & Schulenberg, 2005). 모든 개인이 하나의 모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으로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변화 궤적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과 다르게 이는 집단 내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질적 변화 궤적을 보이는 잠재집단별로 각각 다른 성장요인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Muthén & Muthén, 2000).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변화 유형화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적의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 등의 통계적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AIC, BIC, sBIC를 이용하였으며, 세 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하는데 대략 0.8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경쟁모형과 상대적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조정된 χ^2 차이검증 즉, LMR과 BLRT을 살펴보았다. 두 검증 모두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p값의 유의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후, 분류된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Vermunt(2010)의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독립변인이나 결과변인이 지표변인과 함께 모형에 포함될 경우, 잠재집단 분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개발되었다(Asparouhov & Muthén, 2014). 따라서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집단 분류의 변화에 미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단계 접근법의 1단계에서는 잠재집단 지표를 이용해 기본 잠재집단을 추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집단의 사후분포를 이용해 가장 확률이 높은 변인을 생성하고, 3단계에서는 분류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나 결과변인이 2단계에서 생성된 집단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 또는 분류된 집단에 따른 결과

변인의 차이를 알아본다(Asparouhov & Muthén, 2014).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집단 분석에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III. 연구결과

1.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가. 잠재집단의 결정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형태를 탐색하기 위해 8차에서 10차까지 3개 시점의 무변화 모형($\chi^2=34.412$, $df=4$, CFI=.901, TLI=.926, RMSEA=.129, SRMR=.066)과 선형변화 모형($\chi^2=.552$, $df=1$, CFI=1.000, TLI=1.004, RMSEA=.000, SRMR=.008)을 각각 적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 값 차이 검증을 보완하기 위하여 CFI, TLI, RMSEA 및 SRMR의 적합도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CFI와 TLI는 .90이상인 경우, RMSEA의 경우 .06이하, SRMR의 경우 .08이하를 양호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최적의 적합도 지수를 보여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각 잠재집단에 대한 성장요인의 평균과 분산을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였을 때, 3개 이상의 잠재집단에서 추정에 실패하였다. 성장혼합모형에서 잠재집단별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을 자유롭게 추정하는 경우 추정실패의 문제가 흔히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잠재집단의 성장요인의 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분산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지수, Entropy, LMR 및 BLRT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질적인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형태를 보이는 잠재집단 분석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인 AIC, BIC 및 sBIC값이 감소하였으나 3개에서 4개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Entropy값은 모든 잠재집단의 수에서 양호한 분류의 질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비교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LMR과 BLRT는 잠재집단의 수를 4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하였다.

제시된 통계적 기준만으로 잠재집단 구분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정보지수 기준과 함께 해석의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먼저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는 AIC, BIC, sBIC가 감소한 지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잠재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가 전체 표본 수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잠재집단 분류율 기준(Jung & Wickrama, 2008)에 따르면, 집단별 이질성을 그래프로 확인하여 해석적으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한다는 Nylund-Gibson 외(2014)의 근거를 참고하여 3개의 집단이 명확히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는 분산 동일화 제약을 가한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인 모형이 통계적 검증과 해석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3> 잠재집단 분류 기준 (N=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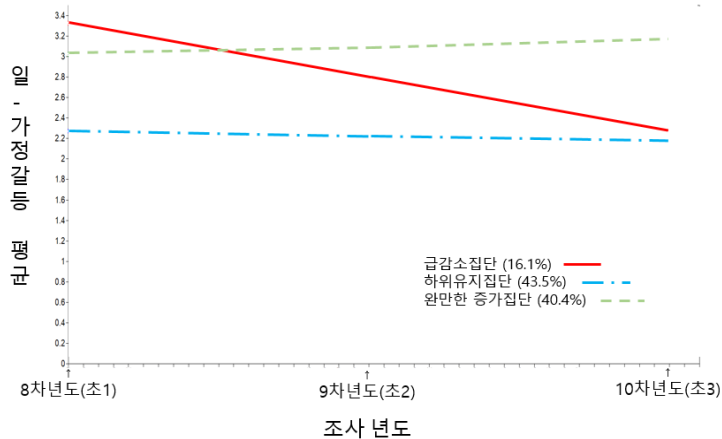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	3	4
정보지수	AIC	2553.437	2543.955	2544.224
	BIC	2590.598	2590.504	2606.160
	sBIC	2562.035	2555.419	2558.554
모형비교검증	LMR	$p < .05$	$p < .05$	$p < .05$
	BLRT	$p < .01$	$p < .001$	$p < .05$
분류의 질	Entropy	.842	.801	.851
	1	8.36	16.08	40.17
분류율(%)	2	91.64	43.53	0.73
	3		40.39	18.69
	4			40.42

나. 분류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

분류된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의 성장 기간 동안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초기치가 가장 높았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집단으로 ‘급감소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16.1%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일-가정 갈등의 초기치가 가장 낮고 이후 2년의 시간동안 큰 변화 없이 하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어 ‘하위유지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43.5%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잠재집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중상위 수준의 초기치에서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으로 ‘완만한 증가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40.4%를 차지하였다. 각 잠재집단별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은 [그림 2]와 같다.

<표 4> 잠재집단별 비율, 명칭 및 함수 (N=459)

잠재집단	비율	함수	계수	표준오차	p
1 급감소집단	16.1%	절편	3.325	.065	.000
		일차함수	-.530	.039	.000
2 하위유지집단	43.5%	절편	2.295	.091	.000
		일차함수	.323	.083	.000
3 완만한 증가집단	40.4%	절편	3.081	.056	.000
		일차함수	.480	.039	.000



[그림 2] 일-가정 갈등의 잠재집단별 변화 양상

2.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잠재집단에 대한 영향요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잠재집단 간 비교를 위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잠재집단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은 일-가정 갈등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급감소집단 및 하위유지집단 보다 완만한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취업모가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급감소집단보다 하위유지집단 및 완만한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요인에서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하위유지집단 보다 완만한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요인으로 상정한 사회적 지지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 (N=459)

변인		급감소집단	급감소집단	하위유지집단
		vs. 하위유지집단	vs. 완만한 증가집단	vs. 완만한 증가집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개인	양육 스트레스	-.41(.66)	1.25(.63)*	1.66(.39)***
	우울	1.61(.66)*	1.33(.64)*	.12(.38)
	자아존중감	.91(.58)	1.10(.60)	.18(.46)
가정	부부갈등	-.60(.38)	-.15(.37)	.75(.25)*
사회	사회적 지원	1.14(.72)	.55(.57)	-.59(.41)

* $p < .05$, *** $p < .001$.

3.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잠재집단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학령초기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에 따른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6>과 같으며, 이질적인 잠재집단 분류에 따른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차이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애정 및 관여, 민주적 관여 등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하위유지집단($M = 3.976$)과 완만한 증가집단($M = 3.753$)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처벌, 비이성

적 별주기 전략 등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하위유지집단($M = 2.493$)과 완만한 증가집단($M = 2.236$)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관성의 부족, 방관 등의 허용적 양육행동에도 하위유지집단($M = 2.273$)과 완만한 증가집단($M = 2.471$)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가정 갈등이 하위수준에서 유지된 집단에 비해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에서 권위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허용적 양육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6〉 잠재집단 유형화에 따른 양육행동의 기술통계치 ($N=459$)

변인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허용적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급감소집단	3.859	.075	2.383	.090	2.377	.068
하위유지집단	3.976	.031	2.493	.043	2.273	.025
완만한 증가집단	3.753	.036	2.236	.040	2.471	.031

〈표 7〉 잠재집단 유형화에 따른 양육행동 차이 검증 ($N=459$)

변인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허용적	
	χ^2	p	χ^2	p	χ^2	p
급감소집단 vs. 하위유지집단	1.769	.184	1.894	.169	1.745	.187
급감소집단 vs. 완만한 증가집단	1.315	.251	.980	.322	1.306	.253
하위유지집단 vs. 완만한 증가집단	19.193***	.000	16.681***	.000	22.171***	.000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전통적 성역할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과 직장에서의 책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어려움과

갈등을 이들의 개인적 특성 및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은 급격한 감소집단(16.1%), 하위유지집단(43.5%), 완만한 증가집단(40.4%)의 3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소효중(201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다. 특히 다수의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이 완만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자녀의 본격적인 학령기 진입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애주기 관점에서도 성장 및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역할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정정화·홍예지·이강이, 2019),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일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수입, 직무 경험 등과 같은 자원이 상승하여(Waismel-Manor, Moen, & Sweet, 2003),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급격히 감소하는 데 기여하였을 수 있다. 이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동일한 시기를 경험하는 취업모 집단 내에서도 일-가정 갈등 변화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일-가정 갈등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어려움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연은모·최효식, 2018b)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이 개인 수준의 문제적 행동이나 상황보다 타인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 즉, 가정환경 내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가용 자원의 활용 등에 따라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급감소 집단 및 하위유지집단보다 완만한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하위 수준에서 유지하기보다는 완만히 증가한다는 것으로 두 변인의 관련을 설명한 Goodman과 동료들(2011)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취업모가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급감소집단보다 하위유지집단 및 완만한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우울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지각하는 역할 갈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조규영·김신경·

전효정,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가정요인과 관련하여 부부갈등은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하위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집단보다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다는 홍예지와 이순형(2017)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즉, 우리 사회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취업모에게 요구되는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에 미치는 부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화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하위유지집단과 완만한 증가집단 간에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가 학령초기를 거치면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집단과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 간에 긍정적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권위주의적과 허용적 양육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하위수준에서 유지된 집단에 비해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에서 권위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더 적게 보이고, 허용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일-가정 갈등이 기혼 취업 여성의 삶의 주요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한다는 연구(이운경·김민주·윤기봉, 2018; Buehler, et al., 2014; Cooklin et al., 2016)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세 개의 잠재집단 중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완만한 증가집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민주적 관계 속 애정 및 관여를 보이는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처벌과 화내기 등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일관성 부족과 방관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가장 높았다. 나아가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한 결과,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세 개의 모든 일-가정의 잠재집단에서 5점 만점의 3점 후반대였고, 권위주의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2점 초반대였다. 즉, 모든 집단에서 취업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고, 부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낮아 이들이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한 시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 양상을 보이며, 실질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관련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과 양육행동

간의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건강한 사회인이자 양육자로서 이들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사회·정책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3차년도 데이터에서 모두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아 일을 중단한 어머니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일-가정 갈등의 어려움에도 현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취업모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일을 중단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 검증하는 것은 더욱 풍성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은 모두 어머니의 자기 보고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자료가 아닌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보다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령초기 자녀의 가장 중요한 주 양육자이자 교육자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내 역기능인 일-가정 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확장하여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역할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모의 일과 가정에서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가족 생활패턴과 구성원의 역할 변화에 미치는 주요 가족생활 사건으로, 이는 취업모의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간 갈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갈등의 지각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소효종(2019)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심리·정서 상태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고려한 사전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가족구성원이 심리·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가정별로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일-가정 갈등에 특히 취약한 가정에게 적절한 지원과 예방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2018년부터는 양육 지원 강화의 목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하는 엄마

로서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에서 오는 양육의 불안과 죄책감을 완화시키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낮출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과 상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시 퇴근 장려, 유연한 근무제도가 기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초등학교의 짧은 정규수업시간과 맞물려 취업모가 직장생활로 인한 자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과 초등 돌봄 교실은 2019년 기준으로 한 학교 당 약 52명의 아동(평균 2.27개)만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로 운영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교육부, 2020). 이에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개인 수준의 문제 해결의 노력보다 가정환경 내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가용 자원의 활용 등에 따라 일-가정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 연구의 논의를 근거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과 관련하여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역할 수행이 미흡함을 알고, 이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성 보호 정책, 여성의 육아 휴직 강조를 넘어 가족 중심의 아버지 학교와 같은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족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울이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 유형에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녀 양육 상황에서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정적 인지-정서 처리과정(Ponnet et al., 2013)을 토대로 양육 환경에서 유발된 부정적 정서 상태가 결국 전반적인 가족 기능을 낮추고, 일-가정 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이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내 가족 구성원이 상호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여 상보적인 양육의 역할을 지지하고,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연대감과 동료의식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가족 기능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부 갈등의 인지 수준,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남녀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대체로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갈등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현경자(2005)를 토대로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을 중심으로 배우자와의 순기능적 상호작용을 높이는 양육 멘토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취업모의 긍정적 양육을 도울 가정 구성원으로부터의 적절한 지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과 같은 아버지 관련 요인을 부부 단위로 고려한다면, 이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일-가정 갈등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http://moe.go.kr/>에서 2020년 6월 12일 인출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소영(2017). 지역사회 가족친화성과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 양립 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157-172.
- 박주희(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9(3), 41-62.
- 소효중(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연은모·최효식(2018a). 일-가정 갈등의 잠재프로파일분석: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253-271.
- 연은모·최효식(2018b). 일-양육 양립시 이점과 갈등,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간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497-523.
- 육아정책연구소(2015, 2016, 2017). *한국아동패널연구* 8, 9, 10차년도 데이터 도구 프로파일.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에서 인출: 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
- 이운경·김민주·윤기봉(2018).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3), 141-156.
- 이재림(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영은·박정윤·이승미·권보라(2011). 유자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63-72.
- 장윤옥·정서린(2014).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전이과정과 전이발생영역.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45-161.

- 정선이·차승은·김순덕·박미희(2019).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부정적 전이와 결혼의 질 그리고 부부갈등의 역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4), 3-20.
- 정정화·홍예지·이강이(2019).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 검증. *인간발달연구*, 26(4), 115-138.
- 정현숙(2004).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조규영·김신경·전효정(2018).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경험과 정신건강: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1), 53-73.
- 최정숙(2011). 일-가족 역할갈등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214-247.
- 통계청(2019). 2019년 6월 인구동향. <http://kostat.go.kr>에서 2019년 8월 29일 인출
- 현경자(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 158-193.
- 홍예지·이순형(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부담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1(1), 105-125.
- Abela, J. R. Z., & Sarin, S. (2002). Cognitive vulnerability to hopelessness depression: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6), 811-829.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7.
- Bronfenbrenner, U.,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Ed.), *Handbook of Child Development: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pp. 793-82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uehler, C. O'Brien, M., Swartout, K. M., & Zhou, N. (2014). Maternal employment and parenting through middle childhood: Contextualizing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5), 1025-1046.
- Cooklin, A. R., Westrupp, E. M., Strazdins, L., Giallo, R., Martin, A., & Nicholson, J. J. (2016). Fathers at work: Work-family conflict, work-family enrichment and parenting in an Australian cohort. *Journal of Family Issues*, 37(11), 1611-1635.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78.

- Goode, W. J. (1960). A theory of role stra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4), 483-496.
- Goodman, W., Crouter, A., Lanza, S., Cox, M., & Vernon-Feagans, L. (2011). Paternal work stress and latent profiles of father-infant parenting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3), 588-604.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Family, work, work-family spillover and problem drinking during mid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36-348.
- Hong, Y.-J., & Lee, K. (2019).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social interactive parenting with a focus on Korean employed mothers' parenting support from ecological contex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6*, 308-315.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ckson, K. M., Sher, K. J., & Schulenberg, J. E. (2005). Conjoi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young adult alcohol and tobacco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612-626.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essler, R. C., Andrews, G., Colp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Walters,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ee, S. M., & Lee, S. H. (2010). The quality of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health of employed mother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3), 67-90.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NY: Wiley.
- Markman, H. J., Stanley, S., & Blumberg, S. L.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rshall, M.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Mauno, S., & Kinnunen, U. (1999). The effects of job stressors on marital satisfaction in Finnish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6), 879-895.
-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ylund-Gibson, K., Grimm, R., Quirk, M., & Furlong, M.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ing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535-569.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Leeuwen, K. V., Bastait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Rijswijk, K., Bekker, M. H., Rutte, C. G., & Croon, M. A. (2004). The relationship among part-time work, work-family interference, and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9*(4), 286-295.
-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 Rodriguez, I. V. (2009). *Work-family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U.S. Latino mothers and father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ismo and gen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New York, United State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A., Pettit, G. S., & Mize, J. (1998). Horizontal qualitie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allels with and possible consequenc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8*(3), 313-352.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Waismel-Manor, R., Moen, P., & Sweet, S. (2003). Winning couples: Predicting conjoint perceptions of work, family and balancing success. *In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1*, F1-F6.

- 논문접수 4월 7일 / 수정본 접수 6월 1일 / 게재 승인 6월 15일
- 교신저자: 이강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kangyil@snu.ac.kr

Abstract

Identifying the Typology of Changes in Work-Family Conflict among Working Mothers with an Early School-Age Child and Examin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Yea-Ji Hong and Kangyi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ology of changes in work-family conflict among working mothers with an early school-age child and to examine their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Data from 459 working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eighth, ninth, and ten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A growth mixture model was used to identify working mothers' work-family conflict trajectorie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in working mothers' work-family conflict were categorized into three latent classes: a rapidly decreasing group, a low-level stable group, and a steadily increasing group. Second, among the antecedents, mothers'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Third, regarding working mothers'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s according to changes in work-family conflict, group differences in all the parenting behaviors were suggested in between a low-level stable group and a steadily increasing group. These findings reveal differences in work-family conflict changes among working mothers, and have further implications regarding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work-family balance support for such individuals.

Key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working mothers, work-family conflict, Growth Mixture Model(GMM), longitudinal study